

2022. Fall

EE Newsletter

—  
EE  
Externship

2기 참가자 후기



EE Externship 프로그램은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들이 현장에서 창업벤처 생태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, 창업기업과 학생을 매칭시켜주는 Outbound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. EE Newsletter 2022 가을호에서는 EE Externship 2기 참가자 인터뷰가 실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후에 발간될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. (여러 참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었습니다.)

Homepage [ee.kaist.ac.kr/newsletter/](http://ee.kaist.ac.kr/newsletter/)  
Instagram @eenewsletter.kaist

# Q. 스타트업 회사인데, 인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업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?

A. 1-8주 동안 주차별 보고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부대표님 또는 그 이상의 책임자께서 직접 EE Externship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실하게 케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실제 학과에서도 확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회사들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# Q. EE Co-op 등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나요?

A. 6개월을 참여해야 하는 Co-op와 달리 2개월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 환경을 체험하기에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로 대기업에서 하는 인턴 프로그램은 구조가 너무 체계적이라 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가 어렵고, 인턴 교육이 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. 반면, EE Externship은 주요 업무에 직접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사장님, 전무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 분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

A.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로 특허를 출원하는 중입니다.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공부시키고 끝나는 느낌이라면 EE Externship에서는 최대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지 인턴이 아닌 신입 연구원처럼 대해 주셔서 느낄 수 없었던 회사의 일원이 된 기분을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다르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# Q.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나요?

A.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회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직접 보며 배우고 스타트업 회사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EE Extern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

# Q. 2개월의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지는 않나요?

A. 직업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, 2개월의 기간 동안 대기업 인턴 등 다른 프로그램보다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스타트업인 만큼 본인에게 회사의 업무가 잘 맞으면 개인적으로 업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저를 포함해 몇몇 분들이 회사에서 업무 제의를 받기도 했고 다음 학기 휴학을 한 후 추가로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다.

A. 오히려 단기간이라 집중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하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